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2 / 5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법정스님 4 어떤 수행자

처음 마음으로 / 덕운스님 9 자리아티(自利利他)의 행복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15 소방차를 부를 권리, 소방차값 치를 의무 유한양행

茶 내음 가득한 시간 21 한국 전통다식(傳統茶食)의 유래

이런생각 한번 어때요 24 웰빙과 배지테리안의 진정한 의미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8 아옹이와 흰둥이, 그리고 웹툰

한국의 탑 32 운주사의 천탑(千塔)

생활에서 실천하는 환경사랑 35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거래, 공정무역

사색의 뜰 36 그대 이름은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38 중앙모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모임

길상사 소식 43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를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2년 5월 1일 발행 / 통권 207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이상조 / 편집인 홍경근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kilsangsa@hanmail.net

어떤 수행자

글 • 法頂(스님)

불교 교단에서 초기 출가 수행자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타행이었다. 두타頭陀는 범어 dhuta를 음역한 것인데, 털어버린다는 뜻이다. 번뇌의 때를 털어버리고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고 오로지 불교의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그때의 출가 수행자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했다.

①출가 수행자는 결식해야 하고, ②분소의糞掃衣(누덕누덕 기운 옷)를 입어야 하고, ③나무 밑에서 앉거나 자야 하고, ④병이 났을 때는 진기약陣棄藥을 써야 한다. 이것이 출가자가 지켜야 할 네가지 의지처이다.

인도의 수행자들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결식에 의해 살아왔다. 그것도

하루 한 끼만을 먹었다. 비구比丘란 걸사乞士를 가리킨 말이다. 옷은 세상 사람들이 버린 천 조각을 모아 그것을 꿰매어 입었다. 가사는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것이 분소의인데, 세 별 이상은 지닐 수 없었다. 또 초기의 출가자는 지붕 밑에서 살지 않고 나무 아래서 좌선을 하고 잠을 잤다. 이를 수하좌樹下坐라 한다. 병이 나면 짐승의 대소변으로 만든 약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것을 진기약이라고 한다. 그러니 지극히 간소한 최저한의 의식주 생활이었다. 최저한의 생활을 통해 최대한의 진리를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두타행은 출가자의 생활을 그대로 해탈의 종교적 최고 경지에 이어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타행자의

생활은 외형적으로 볼 때 고행주의적인 색채를 띠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불타 석가모니가 취한 두타행의 정신이었다.

두타행을 말할 때 선뜻 떠오르는 이름은 마하가섭이다. 그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두타 제일이었다. 《장로계長老偈》40계집偈集에 보면 그가 어떤 두타행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나는 머물던 거처를 떠나
결식하려고 마을에 들어갔다
식사중인 한 나병자에게
공손히 다가섰다.

그는 병들어 썩은 손으로
내게 한덩이 밥을 내밀었다
내 바리때에 밥을 던지자
그의 손가락이 하나 따라 떨어졌다.
울타리 아래로 가지고 가
나는 그 밥을 먹었다
그 밥을 먹으면서도, 다 먹고 나서도
내게는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
다
문전 결식으로 요기를 하고

쇠 오줌을 약으로, 나무 밑에 앉고 누우며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는 사람
그이야말로 자유로운 사방인四方人(승가)이다.

나병자가 먹다가 준 밥을 먹으면서 조금도 언짢은 생각 없이 태연할 수 있다는 것은, 마하가섭의 일상적인 두타행의 정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소식이 다. 공썩어 어쩔고 불구부정不垢不淨이 어쩔고 말로는 곧잘 하면서, 막상 현실에 당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는 사이비 수행자이다. 종교는, 불교는 그 요체가 말에 있지 않고 일상적인 행위에 있음을 우리는 다 같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이면서도 부처님을 몸소 시중들던 아난다와 마하가섭은 성격적으로나 행동양식이 무척 대조적이었다. 결식을 통해서 보더라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아난다는 결식을 해도 부짓집만 골라서 했다. 까닭인즉, 가난한 사람은 자기들 먹을 것

도 빠듯하므로 남에게 줄 여유가 없을 것을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마하가섭은 일부러 가난한 집만을 골라서 다녔다. 그 까닭은, 가난한 집은 일찍이 남에게 복과 덕을 심어 놓은 것이 없어 현재 가난하므로 지금부터라도 그 복과 덕을 심어 미래의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두 사람 다 이유가 그럴듯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차별을 두지 말고 차례대로 걸식하라고 가르친다.

마하가섭의 거처는 주로 바위산이었던 것 같다. 그는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바위산에서 사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섭은 걸식에서 돌아와
바위산에 올라 집착이 없고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치고
아무 번뇌 없이 선정에 든다
푸른 구름이 봉우리 같고
아름다운 누각의 꼭대기 같으며
코끼리 소리 메아리치는
이 바위산은 나를 즐겁게 한다.

이슬비 내려 촉촉한 언덕
선인(수행자)들이 찾아드는 산정
공작새 우는 소리 요란한 곳
이 바위산은 나를 즐겁게 한다.

마치 한산시寒山詩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다.

가섭의 어머니는 두타행을 떠나는 아들에게 노래로써 전송을 하고 있다. 《장로계》 제 82계에 나온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걸식하기 쉽고 안전하며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가거라.
걱정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마하가섭이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얼마 후, 부처님을 모시고 길을 가는데 부처님께서 한 나무 아래서 쉬려고 하였다. 그는 서둘러 자기가 걸쳤던 옷(가사)을 네 겹으로 접어 부처님의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부처님은 기뻐하면서 그가 마련한 자리에 앉으셨다. 앉고보니 아주 부드러운 자리였다.

“이 가사의 천은 매우 부드럽구나.”

이 말을 들은 가섭은 몹시 송구스러웠다. 출가 수행자가 입는 옷은 조잡한 천을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사는 새것인 데다가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조심조심 스승께 사죄했다.

“대덕이시여, 저를 연민히 여기시어 제 옷을 받아 주십시오.”

가섭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대는 내 이 다 해진 거친 옷을 입겠는가?”

“대덕이시여, 제가 세존의 몸에 대었던 거친 옷을 입겠습니다.”

그는 이때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옷을 평생 벗지 않고 해지면 누덕누덕 기워서 입었다. 이 이야기는 남전南傳 《상응부경전相應部經典》 16-11 〈의경衣經〉에 나온다. 뒷날 선종禪宗에서 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가사를 전해받았다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늙어서도 신참의 비구처럼 조심조심 처신하면서 한결같이 두타행을 닦아간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밖 죽림정사竹林精舍에 계실 때였다. 이따금 찾아오는 마하가섭을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이여, 그대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 몸도 많이 쇠해진것 같구나. 그처럼 누덕누덕 기워 입는 분소의를 몸에 걸치기는 무거울 것이다. 그대는 이제 그런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 공양에 초대받으면 이제부터는 옹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 곁에 있어다오.”

“대덕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산림과 광야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탁발 걸식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줄곧 분소의를 걸치고 오늘에 이르면서도 그것을 찬탄讚歎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떤 이유로 그 같은 행을 좋다고 생각하고 찬탄하려고 하는가?”

“하나는 지금 그것을 행하면서 저는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일을 행하여 뒷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된다면 그도 또한 즐거운 일입니다.”

“착하다, 가섭이여. 그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상응부경전》 165 <노경老經>에 나온 이야기이다.

마하가섭은 이와 같이 철저한 생활 규범을 가지고 한결같이 출가 수행승의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이런 구도 정신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의 주관 아래 왕사성밖 베바라 산에 있는 칠엽굴에서 5백 명의 비구를 소집하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교법과 계율을 결집한다(제1결집).

오늘날 우리들이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것도 그의 은덕임을 생각할 때, 두타행으로 다져진 그의 구도 정신에 귀의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인가. 호의호식

으로 호사스런 거처에서 일 없이 안일하게 지내는 것을 수행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 입을 벌리면 화두가 어떻게 건성이 어떻게 하면서도, 일상에 수용하고 있는 의식주며 호화로운 행동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타행이 오늘 우리네의 기후와 풍습 또는 문화적인 여건 아래서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타의 정신만은 그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바뀔 수 없는 출가 수행자의 본질적인 구도 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날 한국 불교 출가 승단의 위기는 최대한으로 수용되는 의식주 때문에 마음껏 배워서 펼쳐야 할 법이 최소한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나없이 옛 거울에 오늘의 우리 모습을 비춰보아야 할 것 같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1982

-산방한담 중에서

자리아타(自利利他)의 행복

글 • 德耘(스님)

세월이 무상(無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無常하다는 말을 시간 자체나 세월이 덧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無常하다는 말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늘 한결 같지 않고 쫓기기 때문에 덧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쓸 대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 그러한 시간들이 무척 이깁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이 한 번 지나가면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이 온통 탐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모르고 아흔 아홉 개 가진 사람이 나머지 하나를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경전에는 탐욕이 바로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근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이나? 분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이 채우려

고 하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을 느낄까요?

물론 어느 정도 관계는 있겠지만 행복은 가진 것에 의해 추구되지는 않습니다. 행복이란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해지지 않는 허망한 욕심에 여러 분들을 내 맡기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소욕지족의 삶을 살아간다면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문염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양 혜충 국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근본 몸인 노사나 부처님 입니까?”하니

국사께서 대답하시길 “나에게 정병(淨餅)을 가져오너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스님이 정병을 가지고 오니, 국사께서 다시 말씀 하셨습니다.

“본래의 자리에 갖다 두어라.” 스님이 시키는 대로 갖다 두고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근본 몸인 노사나 부처님입니까.” 국사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옛 부처님께서 지나 가신지가 오래니라.” (여기에 대해서 운문스님은 “이무런 흔적이 없구나.”하고 착어 하셨습니다.)

이 설화(說話)는 선문 염송 제4권 항목 131의 본신(本身)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본 몸인 노사나 부처님을 물었는데 왜 정병을 가져오라 했을까요? 노사나 부처님과 정병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병이란 스님들이 쓰는 물병인데 이 물병에 물을 담아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구(禪句)는 비유와 함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비유와 함축된 뜻을 잘 살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두에 대해 법진일(法眞一)스님이 송(頌)하시길

“남양의 노종사가 미혹한 무리에게 보이니 조짐에는 한 점 티끌도 없네. 스님이 정병을 주어 제자리에 놓이두니 그것이 원래부터 노사나불임을 모르네.” 하셨습니다.

또 불안 청원(佛眼 淸遠)스님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씀하시길 “이 한 토막의 법문은 증득한 사람이 아니면 종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요. 원숭이 같은 마음을 방치하면 끝내 알음알이를 이루게 되리라.” 평상시에 모두가 “어디가 노사나가 아니리오?” 하고 말하지만 더욱 알지 못한다. 거듭 묻기를 “과거 오래된 부처가 아니겠는가?”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국사의 자수용삼매(自受用 三昧)니라” 하리라

두세 번 묻는다면 “노사나는 그대로가 옛 부처이니, 과거 오래된 부처이니라” 하리라.

또 묻기를 “어느 것이 근본 노사나인가?” 하면 “양구한 곳에서 잘 알아차리라” 하리라.

만일 자세히 알지 못 하겠다면 부득이 군소리로서 그대에게 말해주리라. 나에게 정병을 달라하니, 이런 알음알이는 다만 마음의 원숭이를 풀어놓을 뿐이다.

보지 못했는가! 국사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을 깨달으면 이란(伊蘭, 구린 내 나는 나무)이 전단(梅檀)나무가 되고, 본뜻을 잃으면 감로(甘露)가 능쟁이 밭이 되리라. 하였으니 알고자 하는가? 대양문 밑에는 날마다 가을이요, 명월당 앞에는 언제나 여름이니라. 대중들이여, 어떤 것이 노사나인가? 방으로 들어가서 茶나 마시거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근본 몸 노사나불에 대해서 범망경(梵網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이제 노사나가 바야흐로 연화대에 앉으니, 두루 퍼진 천 꽃 위에 다시 천석가가 나타난다. 한 꽃에 백억 국토요, 한 국토에 한 석가라. 각각 보리수

밑에 앉아 정각(正覺)을 이루고 각각 미진처럼 많은 대중들은 제접하여 내게로 돌아오니 그 수가 천백 억이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것이 노사나의 본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나를 다른 말로 하면 만정각자(滿正覺者)라 합니다.

국사께서 “나에게 정병을 다오.”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에 갓다 두라” 했으니 이 스님은 말을 따라서 가져갔고 가져왔기 때문에 국사의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 밝은 사람이라면 국사의 뜻을 얼른 알아차리고 자기의 의사나 행동을 취했을 것이나 이 스님은 도의 눈이 어두워 국사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을 따라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문도 스스로에게 있고 답도 스스로에게 있다고 합니다.

조사스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을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을 일러 얼굴을 마주 대하고도 천리만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분사(本分事)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득이하여 언설로서 설명하나 언설이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불보살님들이 삶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복과 지혜를 닦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자리이다(自利利他)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국토가 불국토가 되어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함허당 득통스님의 반야의 노래를 소개하고 법회를 마칠 것입니다.

般若歌 (반야의 노래)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면 아무런 흔적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또렷히
그 가운데 안고 눕고 걸어 다니지만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아야 분명히지네.

한기하면 한기하고 비쁘면 비쁘며
피곤하면 다리를 뻗고 먹을 때는 먹는다.
늘 쓰고 있으면서도 항상 일이 없으니
한줄기 차가운 빛도 감출 곳 없으리.

신령한 한 물건이 눈앞에 있으니
또한 능히 땅과 같고 하늘과 같도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나 소리와 빛은 없고
펼쳐지기도 하고 되돌려 지기도 하지만 항상 고요하네.

하나의 몸이 시방세계를 두루 포함 하면서 비었고
일념에 십세계 다 녹아들어 있나니
수많은 성인과 범인이 그 속에 있고
리끝이나 모래알 같이 많은 겁의 세월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네.

깊고 깊은 모든 경건과 계율
도가, 유가, 제자백가의 저술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문
그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펼쳐져 나왔네.

저 허공과 같이 감싸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한 허와 달처럼 온 우주에 두루 한다.
승려와 속인, 돈귀한 이와 비천한 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그 가운데서 함께 주고 사는 것이다.

모습도 없고 이름도 없어 큰 허공과 같으나
우리 스승께서 임시로 바라밀이라 하였네.

마하만야 바리밀
또렷하게 볼 때에 그 어떤 한 물건도 없네.

산과 강과 땅이란 허공속의 꽃과 같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물속의 달과 같네.
모든 존재는 뿌리가 없어 모두 쏜으로 돌아가니
오직 이 쏜만이 사라지지 않는 다네.

지금은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볼 것인가?
달 지고 구름 생겨 산에다 옷을 입혔네.
보면 스스로 아는 것인데 남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커로 들어도 커머거리 같다면 알아차리기 어려우리라.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우니
움직이던 가만히 있던 몸을 항상 편안히 하라.
허공에 누가 터럭하나 붙여 놓았는가?
저절로 얼음 바위가 있어서 만고에 서늘하리라.

다만 눈이 가려져서 텅 비고 밝은 것을 보지 못하니
망령되어 허공 꽃이 다투어 번성함을 보네.
다만 눈 속의 가려진 것만 없애면 되나니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고 텅 비어 맑기만 하네.

나그네의 꿈이 깨어지고 원승이 울음도 그치지
눈 가득히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이라.
몇 사람이나 샅다가 스스로 되팔았는가?
무한한 풍류가 여기서 생겨나네.

봄철 꽃피고 새가 우니, 눈 속 가득히 봄입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불기 2556년 윤3월 초하루
(2012년 4월 21일) 법문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소방차를 부를 권리, 소방차값 치를 의무 유한양행

글 • 변택주

“내 것이라는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 가슴에 아로 새겨진 이 말씀은 이태 전 3월 11일 열반에 든 법정 스님 유언이다. 이 못지 않은 유언이 있다. 이운을 사회로 적극 되돌린 기업가이며 교육자였던 유일한 박사가 1971년 3월 11일 77세를 일기로 흠으로 돌아가며 남긴 “내가 모은 재산은 모두 여러 사람을 위하는 일에 쓰여야 합니다.”로 말문을 연 유언장에는 “

치지 말고 유한 중·공업고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해 티없이 맑은 어린 학생들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 달라. 셋째, 내 소유 주식 14만 941주를 모두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유한재단 전신)’에 기증한다. 넷째, 아내 호미리는 재라가 노후를 잘 돌보아주기 바란다. 다섯째,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고 적바림되어있다. 맑고 향기로운 회향嚮向.

겨레가 될 수 있는 그들이: 1904년 아홉 살 소년 유일한은 “바람 앞에 등불인 조선보다 너른 세상에 나아가 배워 큰 뜻을 펴라”는 아버지 뜻에 따라 대한제

국 순화공사 박정현 손을 잡고 미국 가는 배에 오른다. 미국에서 독신 자매가 정에 의탁해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두 자매를 떠나 구두담이·식당종업원·신문배달을 하며 헤스팅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미시간대학교에 진학을 한 뒤 동양정취가 물씬 스민 손수건·부채·찰찬 따위 일용잡화를 중국 사람들에게 팔아 올린 짝짝한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숙주나물 통조림을 개발, 1922년 '라초이La Choy 식품회사'를 세워 성공을 거두며 대학을 마친 일한은 1926년 친분이 두터웠던 서재필 박사를 찾아가 한국으로 돌아가 일본압제 아래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겨레를 위해 제약산업을 통한 건강입국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서재필 박사는 조각가인 딸에게 부탁해 깎은 유일한柳一韓 성버들 유柳에서 착상한 '버드나무 돌을 새김 목각품'을 선물했다. 커다란 버드나무처럼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건네면서 "어떤 경우에도 한

국인임을 잊지 말고, 버드나무처럼 겨레가 편히 쉴 수 있는 큰 그늘이 되어 주게."라고 복돋웠다. 귀국해 유한양행을 세운 유일한은 미국에서 약품을 들여다 환자들이 필요한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팔았는데, 철저하게 위생을 지켰다. 의약품 판매에 힘입은 유한양행은 화장지, 생리대, 락스, 아이보리 비누, 치약 따위로 점차 범위를 넓혀 농기구와 염료, 페인트도 수입했다. 유일한이 직접 차를 몰고 도시와 농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였다. 유한양행이 1929년 10월 29일 검은 금요일, 미국 주식 대폭락을 신호탄으로 터진 세계대공황 격랑 한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사업다각화 덕분이었다.

1934년 어느 날 밤 해주도립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하는데 프랑스제 혈청주사 약이 없어 환자가 죽어간다는 연락을 받은 유한양행 숙직사원 홍병규, '숙직자는 창고를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고 혈청주사제를 꺼내 약병을 두둑게 싸서 서울역으로 달려

가 경의선 기관사에게 해주도립병원이 있는 토성역을 지날 때 약병을 던져달라고 부탁했다. 토성역은 간이역이라 열차가 설 수 없었기에, 기다리던 해주도립병원 직원들이 약병을 주워 병원으로 달려가 환자 목숨을 살렸다. 평범한 사원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을까. 조희 때마다 "우리는 늘 국민보건을 위해 일해야 한다. 유한은 결코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있다."고 강조한 창업 정신에서 왔다고 본다. 소식을 들은 유일한은 노고를 칭찬하고 던져도 깨어지지 않는 유리병을 개발하게 했다.

출입국 신고서에 늘 교육자로: 해방을 맞고, 이어 밀어닥친 한국전쟁을 어렵사리 넘기고 지루한 휴전협정 회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일한은 오랜 숙원이었던 육영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보유 주식 30퍼센트에 이르는 재산을 내놓는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술배출 길을 열어주려고 1953년 3월 소사공장 안에 '고려공과기술학

원'을 세워 두 차례 졸업생을 냈으나 여의치 않아 1957년 12월 대방동으로 옮겨 '한국직업학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학비와 기숙사비를 받지 않고 용돈까지 주며 공부를 시켰다. 그러나 공부로 다 마치고도 기숙사를 떠나려 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고, 유일한은 학원 관계자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먹이고 재우며 공부를 시킨 까닭은 자립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소. 그런데 도리어 의존심만 키워준 것 같소. 앞으로 기숙사를 없애고 장학금 지급을 늘리시오."라고 했다. 그 뒤로 유한공고를 세울 때는 아예 기숙사를 짓지 않았다.

1962년 11월 제약업계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한 유한양행은 기업을 공개하자마자 사회사업과 육영사업에 힘을 쏟았다. 한국아동양호회, 허약아동보호소인 광주행복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무의탁 장병위문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뜻 재산을 내어놓았다. 유일한은 1963년 9월 개인 주식 1만 2천주를 연세대학교에, 5천주를 보건장학회에 기증했다. 그 해 12월 '국가공익포



유한공고졸업식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

장'을 받았다. 그리고 주식 1만 5천 주와 땅 5천 평, 건축비 7백만 원을 들여 1965년 3월 유한공업고등학교 문을 연다. 설립정신은 '성실 교훈은 참된인간, 기술 연마, 사회봉사'였다. 주 5일 공부를 처음 실시해 학생들이 주말 이틀은 집안 일을 돕거나 사회봉사를 나가도록 했다. 외국을 드나들 때 출입국신고서 직업란에 꼭 교육자 Educator라고 썼던 유일한은 평생을 바쳐온 교육장학사업과 사회원조사업을 오래도록 발전시켜 나

아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1970년 보유 주식 8만 3천여 주를 내놓아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을 발족했다.

국가는 세수입, 기업은 국가 보호가;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불을 꺼달라는 요구가 국민 권리라면, 소방차를 살 돈을 내는 일이 바로 납세의무”라고 늘 말했던 유일한은 투철한 국가관과 기업관으로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여 무엇보다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했다. 자유당



2012년 유한재단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정원식 유한재단 이사장 ©유한양행

정권 때 회계과 직원들이 납부할 영업세를 마련해놓고도 깜박 잊고 날을 넘겼다. 가산세 5퍼센트를 더 내어야 하는 상황, 세무서 법인세 담당 계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유한양행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칸을 비워뒀다. 제때 납부한 것으로 해줄 테니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자유당 정권과 5.16 군사정권이 모두 정치자금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거절하자, 곧바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군사정권 시절, 깨끗한 유한양행 정부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세무사찰요원들은 회계 조작도 없이 제품함량을 속이지 않고는 그만한 이윤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과학기술처에 제품함량분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과거치는 투명한 회계 못지않은 제품우수성마저 입증해줬다. 정부는 1968년 3월 ‘세금의 날’ 유일한 목에 동탑산업훈장을 걸어줬다. “국가는 세수입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고, 기업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 보호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납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일한 박사 지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느 날 유일한이 측근 조권순 앞에 우체국소인이 찍힌 편지봉투를 내밀었다. 조권순이 보낸 편지였다. “뭘 잘못 되었나요?” “모르겠어? 우리나라에 50원짜리 우표가 없나?” “있지요.” “그런데 왜 10원짜리 우표를 다섯 장 붙였느냐는 말이야. 무엇 때문에 소인을 여러 번 찍게 만들어. 국력낭비 아니겠어. 붙이는데도 힘이 더 들었을 텐데.”

대를 이은 숭고함 앞으로도: 유일한 박사 정신은 대를 이어, 1991년 외동딸 유재라도 생전에 모은 200억 원 상당 재산을 유한재단에 기증하고 꽃이 되어 흙으로 돌아갔다. 유한재단을 설립하고

이제까지 장학금 수혜자는 모두 2,100여 명으로 지급액은 6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유한재단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창조 사고력을 심어주려고 1992년부터 '청소년글짓기대회' 해마다 열고, 유일한 박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5년부터 사회 모범이 되는 인사를 뽑아 '유일한상'을 두 해에 한 번씩 시상한다. 뿐만 아니라 1992년 유재라 봉사상을 제정,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여간호사와 교사에게 상을 주고, 1998년부터는 여약사 부문도 따로 시상한다. 그 밖에 홀로어르신과 불우가정지원 외국인근로자 의료봉사, 장애인 재활봉사 따위 사회복지사업을 벌이는 곳에 수시로 재정 지원을 한다.

유한양행은 '사람이 기업을 만들고, 기업이 곧 사람'이라는 유일한 박사 뜻을 존중, 1973년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맨 처음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고,

1998년과 2002년에 걸쳐 우리나라 상장회사로는 가장 먼저 모든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줬다. 2003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 3위에 올랐던 유한양행은 제약부문에서 9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유한재단과 유한학원 주식 23퍼센트를 합쳐 공익법인 주식 40퍼센트나 되는 유한양행은 높은 배당으로 사회공익활동을 지원한다.

임직원 정情有름도 활발하다. 사업지원본부(공장) 간부들이 축을 이룬 '사랑나누기' 모임, 생활건강사업부 '유천사 동아리', '꽃동네회', '라자로회'가 십시일반으로 내놓은 기금을 바탕으로 꽃동네나 라자로 마을처럼 외진 곳을 찾아 사랑을 나누고, 회원이 300명이 넘는 '한마음 사랑회'와 200명에 가까운 '노조 사랑나눔회' 그 밖에 '노조 버드나무봉사단'도 너른 가슴으로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한다.

변택주님은 국군고양병원 병사들과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을 연구하고 컨설팅과 인문학 강연을 겸하고 있다. 이번호부터 사회에 공헌하는 가슴이 따뜻한 기업과 실천하는 인물을 취재하여 나눔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전통다식(傳統茶食)의 유래

글 • 문정수 (차문화연구가)

곶게 다린 하얀 상보 펼쳐 사르르 녹아드는 다식과 함께 따뜻한 차를 고포히 머금어본다.

다식은 크고 작은 의례의 음식으로, 또는 차에 곁들이는 기호음식으로서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우리 고유의 빛깔을 지닌 음식이다.

차문화 극성시대의 다식

통일신라의 음다(飮茶)풍속과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한 우리나라 다식은 '茶食'이라는 그 말처럼 한국 차문화사와 관련성이 깊다.

고려시대는 불교와 함께 차문화가 확대된 시기로서 고려시대에 성행되던 茶의 종류는 단차(團茶)가 주류를 이루었다. 단차란 동그란 모양의 차라는 뜻으

로 마치 떡을 만들듯이 찢 찢을 절구에 찢은 후 그 찢은 찢을 동그란 틀에 다져 넣어 만든 후 잘 건조시킨 것이다.

당시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단차를 다마(茶磨)에 갈아서 분말로 만든 후 뜨거운 물에 직접 풀어 마시는 음다법이 성행하였다. 따라서 찻그릇에 담겨진 다당의 농도는 진했고 그 맛은 쓴맛이 강했으므로 차를 마실 때에는 반드시 달콤한 맛을 지닌 다식이 곁들여져야만 했다. 자연스럽게 단차와 다식은 함께 제향(祭享)의 상차림에서 필수품이 되었고 이에 관한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 고려 초 『대각국사(1055-1101) 문집』의 「용두사 우상대사 제문」을 살펴보면 사원의 제사의례에서 다식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고려사』에 팔관회 진다례식에서 왕과 신하들이 격식을 갖추어 다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팔관회는 원래 신라 중동팔관회가 그대로 답습된 것으로서 팔관회 행사에서의 다식 사용은 신라 때부터 내려온 오랜 풍습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전통이 고려 말까지 이어졌음을 이색(李穡/1328-1396)의 <종덕부추팔관개복다식(種德副樞八關改服茶食)>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上代에 만들어지던 다식의 조리법은 쌀가루나 밀가루에 꿀과 참기름, 청주를 넣고 반죽한 것을 손으로 큼직하게 빔어 가마솥에서 구워내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다식과는 그 재료와 조리법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차문화 쇠퇴기의 다식

조선 초엽의 조정과 왕실에서는 고려의 음다풍속을 잇는 한편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받아들여 준행됨에 따라

처음에는 왕실과 사대부가에서 가례에 헌다(獻茶)가 성행되다가 점차 민가에 퍼지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전기 사회에서는 '차례'라는 이름대로 제사에 차를 올리는 것은 조야귀천(朝野貴賤)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할 의식으로 정착되어갔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차나무 증산 정책이 없었으며 특히 임진왜란(1592-1598)과 15-18C 중반까지 계속된 소빙기를 거치면서 차는 남쪽지방 극히 일부에서만 생산되었다.

따라서 조선 중엽부터는 제사 홀기에 '獻茶'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차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밤을 가루 내어 차가루 대신 쓰는 일이 생겨나자, 이에 퇴계와 율곡 등 예학자들 간에 '헌다'절차의 존재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

조선 후기에 저술된 『성호사설』에서 이익(1681-1763)이 밝혔듯이 차는 物名으로만 전해질 뿐, 제사에 쓸 단차를 구할 수 없게 된 후손들은 궁여지책으

로 꿀에 갠 쌀가루 반죽을 동그란 모양의 다식판에 박아내어 단차처럼 만들어서 이를 다식점 단차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탄생된 단차형 다식(團茶形茶食)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다식의 모양새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제사에 반드시 단차와 다식을 올리던 우리 민족의 오랜 관습과 제물의 상고성(尙古性)이 습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다식의 재료와 조리법은 급진적인 발달을 보이게 된다.

다식판에 새겨진 정교하고 독창적인 아름다운 문양이나 '부귀다남수복강령(富貴多男壽福康寧)'등 문자가 지닌 의미를 다식에 담아 조상들이 지녔던 희구를 표현하고, 도안화된 무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만들어진 다식의 문양에는 당시의 사회상이나 예술성이 응축되어졌다.

쌀이나 밀가루에 국한 되었던 종래의 다식과는 달리 푸른 콩, 오미자, 송화, 쌀, 검정깨의 靑·赤·黃·白·黑色을 잘 조화시킨 아름다운 오색다식

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오색다식에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식생활관과 음양오행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음양오행이란 동양의 고대 및 중세의 철학사조의 하나로서 음양의 오행과 상생에 적합한 색의 사용이 제도화·관례화됨에 따라 각종 상차림에서 다식의 오방색은 필수적이었다.

다식은 사례(四禮)를 중히 여기는 유교사상에 힘입어 제례·혼례·회갑·회혼례 등의 상차림에 꼭 필요한 귀한 음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조선 말엽에는 어상은 물론 개인의 통과례를 위한 고배상차림의 꽃이 되었다.

오늘날의 다식

천년 이상 우리나라 차문화의 성쇠와 관련지어 변화·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전승되어온 전통다식은 차가 풍부해진 오늘날, 이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맑은 차 곁에 다소곳이 앉아, 차의 맛과 분위기에 격조를 더해주며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찻자리를 빛내 주고 있다.

웰빙과 베지테리안의 진정한 의미

글 • 박창근(가수)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달걀이나 우유와 같은 동물성 고단백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할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일수록 소화에 지장을 주는 동물성은 멀리하고 섭취와 흡수율이 높은 식물성 단백질을 소량 꾸준히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필자는 후자의 경우이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외에도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접근방법과 유형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들은 서로의 차이일 뿐 정확하게 옳고 그른 것은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하고 분별해내기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어느 쪽에 서있던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토로하고

증명해내는 작업을 수행하며 토론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모두는 멈출 수 없는 소중한 행동임이 자명하다.

이즈음에서 여러분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 도대체 그 무엇이, 그토록 현실의 대중적 삶에서 가끔은 소외되기도 하고 가끔은 오해를 부르기도 하는 어려움과 비난, 불편한 시선을 받기까지 하면서 글쓴이를 포함한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주의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절제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게 만드는 것일까?

주변의 사람들은 필자가 반(反) 육식가라고 소개하면 긍정적인 표현을 내

게 보여주기 위해 “맞아요, 채식을 하면 아이들도 성격이 온순해지고 착해지는 것 같아요. 육식동물에게도 채식을 하도록 도와주면 서서히 변해가면서 온건해지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며 필자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가 있다.

자! 몇 가지를 지적해보자, 첫째로 채식을 해서 온건해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바로 육식문화와 뿔 수 없는 역사적 관계를 지속해온 남성중심의 지배사상의 영향이다. 그 옛날 힘센 남자들은 생존의 수단으로 사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온 좋게 잡아온 동물들은 집에서 기다리는 여자와 아이들에게 더한 감사와 복종을 강조하게 되고 자신의 강력한 권력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매개가 된다. 그렇게 잡아온 음식을 먹는 순서도 서열이 있다. 힘을 제일 많이 소비한 남자가 먼저 먹고 남는 것이 있다면 여성과 아이들의 몫이 된다. 이는 동양의 농경중심사회에서의 여성의 높은 지위와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채식 위주의 농경문화에서 삶은(boil) 고기는 여성적이다. 삶(boil) 과학이 녹아 있는 삶은(boil) 음식은 이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를 함께 겸비하고 있다. 서구적인 굽는 문화는 바로 현재 여러분이 데이트 장소로 이용하는 고급 레스토랑의 설익은 스테이크, 피가 절절 흘러내리는 덜 익은 가축의 살로 대표된다.

그것은 삶아서 여러모로 쓸모 있게 다양한 음식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단숨에 먹어야 하고 내가 이 동물을 잡아서 이겼노라고 하는, 정복심이 이 글이글 불타는 승리감에 도취된 음식인 것이다.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 고기 문화에서도 ‘수육’이 점차 사라지고 굽는 고기 음식점이 많아지는 것은 그러한 서양의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예일 수도 있겠다.

둘째로 채식을 해서 온건해진다는 말은 조금 바꾸고 싶다. 채식을 하는 동물은 굳이 싸워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므로 하루 종일을 쓸데없이 눈에 힘

을 주고 경계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잡혀 먹힐 것을 걱정하는 것과 꼭 잡아야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모질고 슬픈 운명인지.

셋째로는 채식을 해도 성날 때 성내고 화날 때 화낸다는 것. 위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글쓴이는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요즘은 채식하면 성질이 더 더러워 집니다. 짜증도 더 냅니다.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거리 풍경이 어디 하나라도 쉽게 보입니까?”

채식가들은 자신이 고기를 안 먹는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입안에 넣고 있는 붉은 고기 덩어리들을 볼 때도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점심 때 친구들과 밥 한번 사먹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식당을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짜증나실 겁니다. 만약 온순해지기 위해서 채식을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다시 위에서 던진 화두에 집중해 보자. 우리가 흔히 주변의 웰빙을 이야기할 때 연관되어 불려지는 채식주의와 필자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쓰루다 가르시는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그는 1842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베지테리안’이라는 말의 어원은 vegetable, 곧 채소가 아니라 라틴어 ‘uesere(~에 생명을 주다, 활기치게 하다)’이며 그것이 vegetarian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번역어인 채식주의자라는 말은 베지테리안이라는 의미를 다 담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노래를 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것도 이와 같다.

필자가 주위로부터 들어왔었던 ‘웰빙가수’에 대한 의미 속에도 이와 같은 해석의 불명확한 점이 문제였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게조차 ‘채식주의자 가수’이자 ‘웰빙가수’로 불려지곤 했으니, 이러한 베지테리안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둘의 근본적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쓰루다 가르시가 명확히 밝히는 ‘베지테리안’의 의미는 ‘식물성 식품만 먹는 것을 넘어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고 극복하는 것’이다.

좀더 풀어서 설명해보면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의 건강을 위한 것, 또한 동식물에 대한 사랑, 또 이 사회와 지구의 건강으로 확장시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들의 식생활에 육류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곧 개인의 단순한 질병으로부터

의 보호차원의 건강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삶의 가치관, 즉 한 개인의 사상이며 세계관 즉 스스로의 존재를 표현하는 철학적 가치인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주의자, 사회개혁가로서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던 스킷 니어링의 삶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글쓴이는 이따금 주변의 “저는 고기는 먹지 않지만 굳이 무슨 주의자는 싫어요, 당신은 어때요?” 하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필자는 오히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한다.

“저는 채식주의자 곧 베지테리안입니다!”라고.

박창근 님은 10여년간 거리공연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며, 생명과 평화에 대한 의미를 심도 있게 노래로 짓고 부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옹이와 흰둥이, 그리고 웹툰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만화방의 추억, 없는 분 없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만화방이 있었죠. 큰 만화방에는 만화책이 작가별로 산더미처럼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무협지들도 많았죠.

한 권에 얼마쯤 내거나, 시간당 얼마쯤 내면 만화책을 볼 수 있었어요. 만화방은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다들 코를 막고 만화책을 읽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돈이 없을 때는 줄거리를 대충 보는 척 하면서 서서 만화책을 다 읽기도 했고, 형편이 될 때는 만화책을 빌려다가 집에서 형이나 누나, 동생과 함께 읽기도 했죠. 만화방에 안 가거나 못 가보신 분도 만화책의 추억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시대마다 대표적인 만화가들도 있고요.

하지만 어른들은 만화책을 싫어했어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만화책을 보고 있으면 공부 안하고 허튼 짓 한다고 혼내고, 만화책을 빼앗고 못 보게 했죠. 만화책을 보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만화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 성인만화에는 청소년들이 안 보는 게 좋을 장면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모든 만화가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만화를 보면서 우정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하고, 정의가 이긴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는데 왜 어른들은 안된다고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화방에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지저분한 만화방들도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만화가계를 찾기가 어려워요. 예전부터 단행본을 빌려서 읽게 해주는 만화가계가 만화출판 시장을 죽인다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만화시장이 출판 만화 쪽에서 웹 만화 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출판되어서 버젓하게 팔리고 있는 만화들도 복사본으로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데다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좋은 만화들을 웹툰으로 많이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만화가에게 가서 돈을 내고 만화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전에는 이현세, 허영만 같은 만화가가 최고의 만화가였다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만화가는 강풀이에요.

강풀은 웹툰 시대가 낳은 최고의 스타 만화가죠. 강풀의 만화를 보신 분들

은 다들 아시겠지만 강풀의 만화는 탄탄한 스토리가 강점이에요.

그림은 이현세나 허영만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치밀하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무척이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26년〉, 〈순정만화〉, 〈조명가게〉같은 강풀의 만화를 보면 평평 울게 되요.

요즘에는 강풀 말고도 좋은 웹툰을 그리는 작가들이 참 많아요.

작년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 시리즈나 꼬마비/노마비 작가의 〈살인자ㅇ난감〉은 현재 한국 웹툰의 수준을 말해주는 걸작이죠. 하일권 작가의 작품인 〈3단합체김창남〉, 〈안나라수마나라〉, 〈두근두근겨러〉, 〈삼봉이발소〉, 〈목욕의 신〉도 추천할만하구요.

그 중에서도 꼭 함께 읽고 싶은 만화는 윤필 작가의 〈야옹이와 흰둥이〉예요. 사실 이 만화를 처음 추천받았을 때는 그림이 흑백인데다, 아이가 연필로

쑥쑥 그런 그림인 것 같아서 재미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읽다가 말았는데 어찌면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읽다보면 이 만화 역시 우리의 가슴을 몽클하게 만들고 결국 울게 만들어요.

이 만화의 주인공은 제목대로 야옹이와 흰둥이예요. 고양이 야옹이와 강아지 흰둥이를 키우던 만화가 주인이 빛을 지고 야반도주한 뒤 벌어지는 일이지요.

쫓아온 빗쟁이의 협박 때문에 야옹이와 흰둥이는 대신 돈을 벌러 나가요.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가 일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을 시키는데 야옹이와 흰둥이는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마트에서 일하거나 공사장에서 일하고 학원에서 청소를 하지요. 그야말로 저임금 단순노동을 하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옹이와 흰둥이는 현재 우

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을 다 보여줘요. 이들이 일하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당하게 차별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여주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면 일년이면 일인당 2,000만원씩 버는 거지만, 평균 국민소득 이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만화는 별로 없죠.

〈야옹이와 흰둥이〉는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야옹이와 흰둥이〉가 감동적인 것은 단순히 우리 사회의 가난과 불평등을 고발하기 때문만은 아니예요. 그보다는 야옹이와 흰둥이가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끝내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야옹이와 흰둥이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고마운 마음으로 웃으며 일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죠. 만화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착하고 서로를 배려해요.

사실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바로 그렇게 바보 같은 정도로 착한 마음을 간직한 등장인물들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윤필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서두르거나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들려줘요.

그래서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당한 대우와 차별마저도 담담하게 그리면서 사람들의 착한 마음의 결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흐름은 결국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요.

〈야옹이와 흰둥이〉를 가만히 따라 읽다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장면이 한 둘이 아니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세상이 각박해진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졌다는 사실이예요.

결국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은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야옹이와 흰둥이〉는 한 사람의 착한 마음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착한 마음이 없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러주지요.

어찌면 우리들 자신이 야옹이와 흰둥이일지도 몰라요. 오래 전에 착한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들.

서정민갑님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음악웹진의 편집 및 공연 기획, 연출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보다, 재즈피플, 100Beat, 고래가 그랬어 등에 글을 쓰고 있다.

운주사의 천탑(千塔)

글 • 박 희 준 (사찰생태연구소 생태연구팀장)

운주사는 신라 후기에 도선국사가 우리나라의 지형을 배에 비유해 보니 배 한복판에 해당하는 호남 땅이 영남 땅보다 산이 적어 배가 한쪽으로 기울 것이 염려되어 도력으로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대웅전 뒤 산에는 천불 천탑을 만들 때 앉아서 살펴보고 지휘하던 바위가 있다.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에 있는 운주사는 정확한 창건시기를 알 수 없으나 이 절에는 과거 천불 천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운주사의 탑과 불상의 형식으로 비추어 볼 때 천불 천탑은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주사에는 탑 18기, 불상 80구

가 남아 있는데, 모든 탑과 불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탑으로는 ‘운주사 9



운주사 9층 석탑

층석탑(보물 제796호)과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보물 제798호)’이 있다.

9층석탑은 운주사 입구 들머리에 세워진 탑으로, 크고 널찍한 바닥돌을 아래층 기단으로 삼고 그 위에 상층 기단을 쌓은 후 9층의 탑신(塔身)을 세웠다.

상층기단의 가운데 돌은 4장의 판석으로 만들었고, 네 모서리에 기둥모양을 새겼으며, 사면 가운데에도 기둥모양을 굵게 새겨 면을 둘로 나누어 놓았다. 이 상층기단에 1층 지붕돌을 얹어 상층기단이 1층 탑신을 대신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운주사의 모든 탑이 이런 형식으로 세워졌다. 탑신의 각 몸돌에는 면마다 2중으로 머름모꼴을 새기고, 그 안에 꽃무늬를 새겼으며, 각 지붕돌의 밑면을 약간 치켜 올리고 여기에 여러 겹의 빗살무늬를 조각했다. 이런 수법은 운주사의 석탑에서만 볼 수 있다. 꼭대기 상륜부에는 원기둥모양으로 다듬은 돌과 보륜(寶輪:바퀴모양의 장식)을 얹었다.

탑의 면이 사각형인 것은 고려시대

의 일반적인 탑들과 같으나, 지붕돌 밑면에 받침을 생략한 모습이나 각 면에 새긴 장식이 일반형에서 벗어난 모습들은 보기 드문 예이다. 이는 지방적인 색채가 뚜렷했던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은 탑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형태에서 일반적인 석탑의 형태를 벗어난 독특한 모양의 이형 석탑이다.

기단(基壇)은 2단의 둥근 바닥돌위에 높직한 5개의 돌을 이용하여 10각으로 짜 올리고 그 위에 16장의 연꽃잎을 장식한 돌을 올려 마무리하였다. 탑신(塔身)과 지붕돌은 모두 원형이고, 층마다 몸돌 측면에 2줄의 선이 돌려져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6층뿐이지만 탑의 기본적인 층수가 홀수인 점과 탑의 전체적인 모양으로 보아 원래는 위로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탑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조형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가 드문 것으로 고려시대 각 지방에서 특이한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 기단의 맨 윗돌은 윗면

이 편평하고 아랫면이 둥글며, 지붕돌은 아래가 편평하고 윗면이 둥글어 안정감을 높다.

이 외에 운주사 7층석탑, 쌍교문 7층석탑, 석조불감 앞 7층석탑, 거북바위교차문 7층석탑, 칠성바위 앞 7층석탑, 수직문 7층석탑 등 많은 7층석탑이 있다. 쌍교문 7층석탑은 탑신의 몸돌에 두 개의 X모양을 새겨 넣었고, 거북바위교차문 7층석탑은 탑신의 몸돌에 한 개의 X모양을 새겨 넣어 독특한 탑신 문양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의 탑으로 이 있는데 기단석 위

에 4개의 판석을 상층기단으로 짜고 그 위에 윗면이 둥글고 아랫면이 편평한 기단 덮개돌을 덮은 후 발우 모양의 둥근 돌을 쌓아 올린 '발형다층석탑(鉢形多層石塔)'이다.

탑은 아니지만 운주사에는 석불을 모신 돌로 만든 감실인 '운주사 석조불감(雲住寺 石造佛龕, 보물 제797호)', 부부외불 '외형석조여래불(臥形石造如來佛), 복두칠성 모양으로 놓인 '칠성바위' 등과 경내 곳곳에 세워진 80여기의 불상도 유명하다.



운주사 7층석탑과 쌍교문 7층석탑

거북바위 교차문 7층석탑

발형다층석탑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거래, 공정 무역

글 • 김소영(자연사업 팀장)



세계공정무역(WFTO)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세계 공정무역의 날로 지정하여 지구 곳곳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자연과 환경에 해를 가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자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공정무역이란 가난한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고, 책임성 있는 생산방식을 통해 환경 피해 또한 최대한 줄인 아름다운 거래라고도 불리지만,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없다면 뿌리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꼭 열정적인 환경운동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녹색 소비, 착한 소비라고도 불리는 사람과 동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탁자에 앉아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수확한 커피를 마시거나
중국 사람들이 재배한 차를 마시거나 또는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재배한 코코아를 마신다.
우리는 일터로 나가기 전에
벌써 세계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마틴 루터 킹-

그대 이름은

글 • 현정화(회원)

그대 이름은 한 그루 소나무
 푸르른 기상을 파아란 하늘에 기대어
 오늘도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수행자
 고고히 흘러내리는 기쁨은 한 마리 학처럼
 드높고 청초히 한 줄기 흘러내리는 아침 햇살이여라.

날마다 숲 속에서 긴 여정으로
 침묵하여 세파를 이겨내고
 가슴시린 이슬방울이 벗이 되는 네 모습은
 고독에 젖은 대나무와 짝이 되련다.
 때로는 방랑자의 그늘이 되고
 때로는 동심의 아이와 대화하면서
 싱그런 말동무로 드높은 온기를 모두에게 나눠주리.
 말없이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내는 너는 자연의 맑은 그림자

언젠가는 해 맑은 아기와 다정스런 눈빛을 맞추고
 끝없이 흘러내리는 나무 끝자락에 내 두 팔을 보듬어 보리라.

항상 그러하듯 여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 나가리

조금은 힘들어도 인내라는 옷깃으로 좀 더 굳건히 이겨나가리

가다가 쓰러지면 천천히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며 두 손을 맞잡으리.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은 저 만치 달려오는 바람에 날려 보내며
 내 어린 마음을 강한 심지로 띄워 보내련다.
 지금이라는 오늘이 저 만치서
 나에게 달려올 때
 내 시린 고독이 한 그루 소나무를 보듬어 보낸다.

- 현정화 회원님께서 두 편의 자작시(그대 이름은, 촛불)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면 관계 상 한 편만 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동,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가족 이야
 기 등 소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그리고 독자 참여 지면을 늘어나가겠습니
 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 모집 안내 • 작품 및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본모임 사무국으로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채택될 시 귀중한 책 한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보낼 곳 •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 이메일 : clean94@daum.net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앙모임 (02-741-4696~7)

결식어웃 밀반찬 조리봉사자 모집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 2가지 밀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총 지원가구 수는 420가구와 단체1곳입니다.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특히 남자 봉사자(성인, 단체 5인 이하 정도)의 도움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실 분은 전화 주세요.

문의 : 02-741-4696~7 / 담당 : 이예진 간사

전화말벗 봉사자 모집

전화말벗 자원봉사는 결식어웃 후원사업 대상자인 재가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등에게 정기적인(주1회)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지난 3월부터 전화말벗 2기 봉사팀을 구성하여 활동중인데, 추가적으로 봉사자를 모집 하오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활동내용 : 매주 1회 이상 결연가정에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건강) 확인, 각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 및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한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인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지원

본모임 - 성북구 이웃돕기 유공 표창장 수상

본모임은 4월 24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웃돕기 유공 표창장을 수상하였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최하고 성북구에서 후원하는 '희망 2012'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참여하여 성북구 관내 결혼가정 밀반찬과 김장 지원 사업과 월곡청소년센터 위탁운영단체로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늘 자리에서 함께 해주는 자원봉사자와 회원들의 공로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처님 오신날과 함께하는 녹색나눔 장터

친환경 용품과 각종 재활용품들을 홍보하고

순환하는 녹색나눔장터가 4월부터 마지막 일요일 길상사 트락에서 진행됩니다.

5월에는 부처님 오신날(5월 28일)에 길상사 트락에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장을 펼칩니다. 천연 수세미, 천연 화장품, 재활용 의류를 활용하여 재탄생된 리폼물건들과 회원들이 가정에서 버리기에겐 아까워, 장터로 보내주신 여러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회원님이나 신도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물건 판매 가격은 예전 최고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절하여, 내놓기 아까워 보관해두었던 질 좋은 물건도 저렴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벼룩시장에 참여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신청을 해주세요.

수익금의 최소 20%는 불우이웃기금으로 후원해주셔야 합니다. 장터 물품후원은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장터 개최 15일전부터 받습니다.

아울러 장터를 함께 진행하고 도움주실 분을 찾습니다. 장터에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장터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해 줄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소식지 발송 봉사자 모집

소식지 발송 작업은 매달 초(3~5일) 사이에 이뤄지며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전후로 길

상사내 본모임 소모임방 '세계일화실'에서 행해집니다.

평소 본모임의 활동에 참여 하고 싶었으나, 시간적으로나 힘에 겨워 참여하기 꺼려했던 분이라면, 한 달에 딱 한번 2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봉사일정을 사전에 연락드립니다.

숲기행 안내

경기 · 강원도 숲을 찾아서

- 5월 5일 : 강화도 정족산 성곽길 그리고 전등사 (6월 숲기행 접수는 5월 7일 오전 9시부터)
- 6월 16일 : 강원도 바우길(선자령 풍차길)
- ※ 6월은 숲해설사의 일정상 3째 토요일로 변동,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7월 숲기행 참가자 접수는 6월 18일 오전 9시부터 받겠습니다.)
- 참가비 : 회원 20,000원 / 비회원 25,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7

2012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증서" 수여식 보고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금' 수여식을 4월 14일(토) 길상사 설법전 소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본모임 소속 회원과 길상사 신도 추천 4명, 성북구, 강북구 학교 추천 16명, 불교 중립학교 추천 5명, 광주, 부산 모임 추천 5명, 총 30명(남학생 14명, 여학생 17명 / 서울 20명, 경기 4명, 부산 2명, 광주 2명, 전남 2명)을 선정하였으며,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22명의 장학생과 부모님이 참석 하였습니다.

이사장 스님께서는 장학생들에게 본모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장학생들에게 두 가지 부탁의 말을 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고 가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 노력하고 정진할 것과 자기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정해 서 그 분야에 대해서 넓고 깊게 교양을 넓히고 확실한 전문가가 되도록 많은 책을 읽고, 마음의 수양을 닦는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하 며,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장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로써 본 모임이 활동을 시작한 1994년 첫 해부터 2012년까지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은 451명입니다.

대구 모임 - 나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대구모임 사목을 중심으로 '만촌 나눔센터'를 개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맑고 향기

로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의 기본 정신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부터 시작하여 내 이웃과 내 마을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려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나눔 마을을 하나 둘 늘려가고자 첫 번째로 대구모임 사 옥부터 이웃을 위한 나눔 센터로 이웃주민 들에게 개방하여, 함께하는 공간으로 어른신 들께 활기와 웃음을 드리는 공간으로 청소년 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기존 밑반찬 조리, 배달 사업에서 어르신 급식사업으로 확대하고, 마을북카페,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학습지도 및 고민 상담등의 다양한 사업을 위해 1층 공간을 넓히고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모임에서 맑고 향기로운 나눔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자의 관심을 기다 립니다.

- 후원 및 자원봉사자(재능 기부자) 모집
- 웃음교실, 학습지도, 상담, 말벗봉사자 모집
- 급식시설 물품 후원
- 북카페 관련 책장, 서적, 탁자 대기등
- 어르신 급식, 밑반찬 배달, 차량 봉사자 모집
- 문의 : 대구모임 (053-753-8883)

의류재활용 봉사 모임 안내

'맑고 향기롭게'는 생활 속 작은 실천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안 입고, 못 입는 청바지, 한복 천, 짜투리천을 이용해 소품 등을 만들어 녹색장터에서 판매하고 또한 필요한 곳에 나누 기도 합니다. 지난해 안 입는 청바지를 활용 해 만든 청가방은 녹색장터를 통해 많은 분 들께 소개되어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봉사팀은 여러분께서 기증하여 주신 헌옷이나 짜투리천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어 장터를 통해 판매하여 수익금은 다시 사회로 환원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 모임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환경운동가도 아닙니다.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 하나 청정하게 생활하면 두루 온 세상이 청정 할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 의류재활용으로 이런 것도 있다고 알려주시면 더 많은 작품이 나올 듯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또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의 ; 02-741-4696~7

더욱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금 변동, 중단 시에도 사무국으로 전화만 주시면 간편하게 처리해드립니다.

☎ 02,741-4696~7

자동이체 후원 안내

매월 원하시는 일자에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발송/ 5월 3일(목), 오전 10시 ~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아동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 활동/매주 목-5월 3,10,17,24,31일/금-5월 4,18,25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매주 월요일(5월 7,14,21,28일)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5월 2,16일) 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송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 활동/둘째, 셋째 일요일(5월 13일,20일)/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첫째 일요일(5월 6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5월 13일) 오전 8시 2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의류재활용 리폼/세계일화실
- 부처님 오신날과 함께하는 녹색나눔장터 /5월 28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길상사 트랙
- 숲기행 /5월 5일/ 강화도 정족산 성곽길 그리고 전등사



대구모임 (053-753-8883)

5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소리녹음봉사/매주 월요일-개별녹음 /정기모임: 매월 셋째 금요일 오후7시(예정)
- 롬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매월 셋째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케어, 빨래정리, 말벗)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아름다운가게 되살림터 봉사/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12시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5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 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 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 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밀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 수강 신청



하세요/ 매월 첫째주 / 셋째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051-898-2672~3)

5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우 이동목욕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 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5월 정기 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 화북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매월 둘째 수요일 2시/사무실
- 후원 : 농협 609-02-283017 / 김영봉

대전모임 (042)823-0770

정기 활동 안내

- 충남대 대불련 후원
 - 자혜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지역불교문화행사 동참
-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6/ Fax:(02)3672-5947

대승기신론 수강생 모집

- 개 강 : 5월 1일 (화요일 1시 30분~3시 30분)
- 기간 : 5월 1일 ~ 7월 17일 (12주)
- 지도법사 : 성광 스님(영산선원 회주)
- 수강료 : 6만원(교재비 포함)
- 입금계좌 : 신한 100-025-929544 / 길상사
- 접수처: 길상사 교무실 (02)3672-0036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5월 5일	오후7시~9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5월 14일	오후9시~새벽4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5월 14일	오후8시30분~새벽4시	설법전
지장재일 기도	5월 8일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5월 14일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5월 21일	9시 50분	극락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5월 28일	9시	극락전
길상음악회	5월 28일	9시	극락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4시,9시50분, 저녁7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4시,9시50분, 저녁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20분	소강당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6/ Fax:(02)3672-5947

길상사 연등접수

5월 28일(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길상사에서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는 법회를 봉행하며, 길상사 경내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지스님의 법문과 길상사에서 마련되는 행사들을 통해 우리들이 참된 불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환히 밝힐 연등을 현재 접수중입니다.

다라니 기도

- 일정: 6월 2일 (오후8시 ~ 10시)
- 염송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삼천배 철야정진

- 일정: 6월 9일(오후8시30분~다음날 오전4시)
- 장소: 설법전
- 준비물: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 동참금: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죽/과일 간식 제공)
- 주의사항: 반드시 좌복보호대를 깔고 수행에 임하세요.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정: 6월 9일 (오후9시~다음날 오전4시)
- 장소: 길상선방
- 동참금: 무료 (누구나 참여가능)
- 간식으로 죽 공양 합니다.

6월 주말 선수련회

- 일정: 6월 셋째 주말 16일(토)~17일
6월 넷째 주말 23일(토)~24일(일)
- 대상: 종교에 상관없이 참선수련 경험 有 無 무관
- 참가비: 5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 접수: 길상사 홈페이지(문의: 교무실 02-3672-0036)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주머니” 접수

나누는 기쁨 “자비의 주머니” 를 접수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성북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주머니를 나누고자 합니다.

접수는 5월 20일까지 생필품 (비누, 양말, 식용유, 김 등) 을 담아주시거나 성금을 성의껏 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 오신날 당일 자비의 주머니를 전달하겠습니다. 접수 문의는 종무실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동참을 기다리겠습니다.